

사회

# 신종플루 확산 속 여름방학 해외연수·여행 보낼까 말까

### 학부모들, 자녀 단체행사 참여 여부 고민

### 광주교육청 '신종플루 제로' 무너질까 긴장

초등학교 3, 4학년 아들, 딸을 둔 학부모 김수영(여·39·광주시 서구)씨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올해 초부터 자녀의 미국 단기 해외연수를 준비해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 우려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머물면서 영어연수를 받으려고 비행기표를 물론 학원비까지 모두 완납한 상태"라면서 "안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하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학생 아들들 둔 정기민(45)씨도 이번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했지만, 취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씨는 "국내 여행도 고려해 보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신종플루가 확산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국내·외를 떠나 휴가 자체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의 해외단기

연수 프로그램이나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휴가를 계획중인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신종플루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는 아직까지 신종플루 감염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지만 교육당국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간부회의를 열고 일선 학교에 방학기간 동안 교사 및 학생의 해외 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방학생활지도서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해외여행 등을 강제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학 전 신종플루의 위험성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만 교육중"이라며 "방학기간 중 신종플루 감염학생이 발생할 경우 2학기 학교 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방학이면 영어연수나 여행 등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학생

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여행 자체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성을 들긴 했지만,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 아이와 캐나다에서 한 달 정도 보낼 생각"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이 모두 끝나 포기할 수도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자녀와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학부모도 "국내도 신종플루에 안전하진 않다. 그렇다면, 무더운 여름에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단 한 곳도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말이나"라며 "개인 위생관리 등에 철저히 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여행을 떠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유학생이 입국하고 해외로 선교활동을 갔던 한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신종플루가 급격히 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더구나 여름방학에다 지방의 축제까지 겹치면서 신종플루의 독이 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광주지역은 13일 수완고를 시작으로, 14일 하남중, 15일 일동초 등 각각 학교들이 여름 방학에 들어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뒷산 암벽 '와르르' 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13일 오전 7시30분께 조선대학교 경성대 건물 뒷산 암벽이 연일 계속된 장맛비로 무너져 내렸다. 무너져 내린 바위와 돌이 금방이라도 학교 건물을 덮칠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신도 연쇄살인... 풀리지 않은 의혹

### 범행 동기·대상·자백 모두 의문 투성이

‘광주 여성 신도 피살’, ‘여의사 살인’ 등 40대 여성 연쇄살인 사건이 피의자 박모(38)씨 검거와 함께 해결됐다. 그러나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범행 일체를 왜 자백했는지, 여성 신도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등 아직 궁금증이 채 풀리지 않고 있다.

▷다른 범행 동기는 없나? = 박씨는 지난 4월 고국으로 돌아간 몽골 출신 아내 K(25)씨를 찾으러 갔다가 교회에 다니는 처형으로부터 멸시를 당한 뒤 신도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처가의 멸시가 박씨를 연쇄살인범으로 내몬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박씨는 몽골에 사는 처형이 교회 신도라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상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범행 왜 자백했나? = 박씨는 지난 8일 신도 염모(여·48)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박씨는 검거 직후 여의사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오락가락했다.

그러던 그가 지난 11일 경찰관과 함께 자신의 집을 다녀온 후 "내가 한 짓"이라고 자백했다. 박씨는 집에서 어머니를 만난 뒤 박씨가 여의사 살해 사건에 대한 정황을 자백한 데 이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장갑 등을 버린 위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박씨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배경이 무엇인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정황적 진술과 증거물이 나오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전했지만 석연찮다.

▷여성 신도만을 노렸나? = 박씨는 자신의 진술처럼 신도만을 살해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지만 두 피해자의 닮은 점이 너무 많다. 우선 청바지에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던 점이다. 또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라는 점도 일치한다. 특히 40대 여성이라는 점도 같다.

아울러 박씨가 "범행을 저지르려고 다른 교회 등도 갔는데, 실패했다"고 진술한 점도 석연찮다. 여의사의 경우 교회 인근 도로에서 피살당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범행 대상을 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신종플루 확산 될까 우려”

###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취소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에 따라 전격 취소됐다.

여수시는 오는 23~25일 진남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제10회 국제청소년 축제를 신종 플루 발생과 확산 가능성 때문에 취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번 축제에는 전 세계 50여개국이 청소년 370여명과 우리나라 청소년 등 총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여수시청은 "신종 플루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했다"며 "청소년축제 때 신종 플루가 발생, 확산되면 도시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은 여수시에 이미 불참을 통보해왔으며, 여수시는 이번 축제에 참가하기로 했던 각 국에 행사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 박양규기자 ykpark@

### “일 못한다” 선원 폭행치사

### 해경, 30대 선장 영장

목포해양경찰은 13일 선상에서 선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영광군 선적 자방어선 K호 선장 구모(39·영광군)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10일 오전 무안군 해제면 담머리 인근 해상에서 9급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선원 이모(41)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씨가 몸이 아파 침실에서 쉬던 중 숨졌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 나원침 (7854) 김장두



### 공사 현장 근로자 매몰 사망

13일 오전 9시45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C아파트 앞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차모(63)씨가 흙더미에 깔렸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목격자들은 "차씨가 가스관 매설 공사를 하려고 굴착기로 파놓은 1.7m의 구덩이에 들어가 공사를 하던 중 바로 옆에 쌓여 있던 흙더미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파묻혔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

### 도박장 개설해 돈 뜯은 조폭 '덜미'

○농촌지역을 돌며 역대 도박관을 벌여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조폭 2명 등 일당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해남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정모(38)씨 등 2명을 도박장장 혐의로 구속하고 안모(36)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정씨 등은 지난해 8~12월 강진과 해남, 목포 등의 폐교, 여관 등에서 1만원부터 시작하는 포커도박 등 1억5천만원 규모의 도박관을 벌인 뒤 시간당 3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경찰은 도박 자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와 도박장 운영 과정에서 농민 등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했는지를 집중 수사중.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정광학원 채용비리 수사 의지 있다”

### 경찰 내사종결... 전교조 “고발장 다시 내겠다”

광주광산경찰이 정광학원의 교원 채용 과정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돌연 종결해 지역 교육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13일 학교법인 정

광학원 교원 채용과정의 금품수수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 달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불교

관련 단체가 유령단체로 밝혀진데다 시 교육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수사를 중도에 포기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전교조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립광주박물관' (National Gwangju Museum) featuring a large illustration of a traditional Korean lantern and text promoting an exhibition. The text includes '국립광주박물관' and '국립광주박물관'.